

## 경기도, 튀르키예에 100만 달러 규모 역대급 구호금 전달. 김동연 지사, “충격과 슬픔에 빠진 양국 국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린다”

○ 김동연 도지사,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 통해 구호금 전달 계획 밝혀

- 대한적십자사 통한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달

- 경기도119구조대도 중앙정부 통해 파견. 도, 의료, 구조, 구호 등 가능한 지원 아끼지 않을 예정

○ 도, 2008년 이후 7차례에 걸쳐 200만 달러 국제 지원.

- 이번 100만 달러 지원은 2011년 동일본 지진 구호금과 같은 역대급 규모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튀르키예와 인접국 시리아에서 커다란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재해 복구를 위해 100만 달러의 구호금을 긴급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100만 달러의 구호금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도가 일본에 지원했던 것과 같은 규모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100만 달러의 구호금을 전달하겠다”면서 “커다란 충격과 슬픔에 빠진 양국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의료, 구조, 구조 등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튀르키예는 대한민국의 ‘형제 나라’라고 부른다. 용

인시에는 한국전쟁 참전을 기리는 ‘튀르키예군 참전비’가 있으며, 이스타불주와 경기도는 2012년부터 우호 교류협력을 이어오고 있다”며 튀르키예와의 인연을 소개한 후 “인명구조와 복구 등이 차질 없이 이뤄지고 이번 강진 피해가 하루빨리 극복되길 바란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이번 지원은 재해발생시 구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기도 국제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대한적십자사 긴급구호 계획을 통한 간접 지원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원은 경기도 예비비를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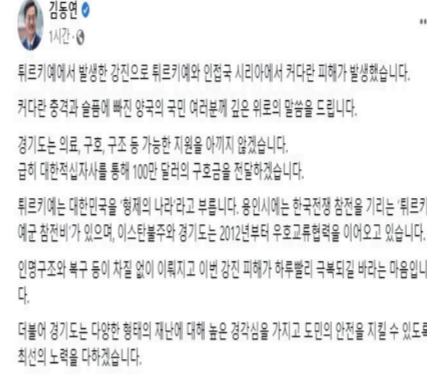
이 밖에도 도는 현재 중앙정부와 협력해 경기도 119구조대를 파견했으며 추가 파견 규모도 정부와 협력해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가 해외 구호를 펼친 사례는 2008년 이후 총 7회로 2008년 중국 쓰촨성 지진(30만 달러), 2010년 아이티 지진(10만 달러), 2011년 동일본 대지진(100만 달러)과 터키 지진(10만 달러), 태국 홍수(10만 달러), 2013년 필리핀 태풍(20만 달러), 2015년 네팔 지진(20만 달러) 등에 총 미화 200만 달러 규모의 재난복구지원금을 지원했다.

경기도는 튀르키예 이스타불주와 2012년 2월 우호교류협력을 체결하고 경제, 무역, 투자, 농업, 과학, 기술, 관광, 문화, 예술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조혜영기자



## 환경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세종 지역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시행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사업장·공사장의 가동·조업시간 조정 등 시행

환경부는 2월 6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세종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

해당 지역의 고농도 상황은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면서 발생했으며, 2월 5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µg/m³를 초과하고, 2월 6일도 일평균 50µg/m³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2월 6일 0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먼저 해당 시도에 위치한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폐기물소각장 등 공사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 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 차량 등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

장 밀집 지역을 점검한다. 또한, 2월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을 시행하며, 적발 시에는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한다.

아울러,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환경부 장관이 2월 6일 오전 8시에 서울 서초구 소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어 유제철 환경부 장관이 서울 중구 서소문로 소재 서울시 5등급차량 운행제한 상황실을 방문하여 단속 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정남식 인천시 대기보전과장이 인천시 건설공사 현장, 경기도 김동성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시흥시 생활폐기물소각장을 방문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 현장을 점검한다.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관계 기관과 함께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참여 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성지아기자

## 경북도,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시 유치 본격 돌입



APEC유치 전담팀 구성, 경주시 유치 방안 전략적 대응 논의

경북도와 경주시는 지난 1월 조직 개편으로 APEC유치 전담팀을 구성하고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경주유치 준비에 착수한 가운데 7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관련기관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경북도, 경주시, HICO, 경북관광공사, 경주시 숙박시설 관계자 등이 참석해 각 기관에서 추진해온 정상회의 유치 추진 사업 검토와 금년도 신규 추진사업 논의, 하반기 본격적인 개최도시 선정 과정에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2025 APEC정상회의의 경주유치 홍보 강화 방안 △경주 시민의식 대전환을 위한 캠페인 전개 △HICO 중개축 현황 △경주시 숙박시설 현황 등에 대해 점검하고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구현도 국제관계대사는 “정부에서 공식 지정한 ‘국제회의도시’ 경주는 유치 신청 도시 중 유일한 기초자치단체로 국내 소규모 도시개회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 및 관광·경제 활성화에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 강조하며 “그런 의미에서 경주가 2025 APEC 정상회의의 최적지임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정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개최지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오는 16일 롯데호텔서울에서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 민간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

각계 유력 인사를 민간추진위원으로 위촉해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에 전방위적 유치지원 활동을 펼쳐갈 계획이다.

윤근수기자



**미세먼지를 줄이는 4가지 실천**

- 01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고, 운전할 때는 친환경 운전습관 지키기! (공회전, 과속, 과적은 NO!)
- 02 폐기를 배출을 줄여 소각량도 줄이고, 미세먼지도 줄이고!
- 03 가열할 적정 실내온도(20℃) 유지, 낭비되는 대기전력 줄이기!
- 04 불법소각이나 불법배출, 못 본 척 말고 바로 신고하기!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4가지 실천**

- 01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도 10분씩 하루 3번, 조리 후에는 30분 이상 환기 필수!
- 02 공기청정기나 환기시스템의 필터는 미리 점검하기!
- 03 외출 후에는 손씻기, 세수하기, 양치질로 미세먼지 제거하기!
- 04 미세먼지가 매우 나쁜 날에는 격렬한 운동 피하기!

피톤치드뽕뽕청보리청보리부농부농... 피톤치드뽕뽕청보리청보리부농부농

### 향기와 색깔의 향연, 산소카페 청송군!

산소카페 청송군은 이름 그대로 피톤치드 향이 뽕뽕 솟아나는 푸른솔의 고장입니다.

산소카페 청송정원의 봄은 새파란 청보리의 물결이 바람소리를 내고, 산소카페 청송정원의 가을은 백일홍의 아름다운 자태가 끝도 없이 펼쳐집니다.

사람이 아닌 자연을 마주하는 곳!  
힐링 명소, ‘산소카페 청송군’

※ 피톤치드 : 식물에서 분비되는 향균, 살균성을 띠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총칭.  
※ 부농 : 사람을 연상시키는 분홍색에서 유래된 SNS 용어. 달달한 사랑을 나누는 커플을 의미한다.



# 서울시, 6일부터 전화로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접수가능

## 안심소득 접수 콜센터 운영...온라인 어려운 가구 위한 조치

서울시는 6일부터 전화를 통한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참여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약자를 위해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접수를 지원하는 접수 콜센터를 운영한다.

전화를 통한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접수는 6일부터 10일 18시까지 5일간, 안심소득 접수 콜센터에서 할 수 있다. 안심소득 접수 콜센터는 점심시간을(12~13시)를 제외하고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한다.

접수 콜센터에는 사전 교육을 받은 전문 상담원 20명이 배치되며, 가구 정보 등 확인 과정을 통해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가구의 접수를 대행한다.

음성 자동안내(ARS)에 따라 본인 확인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 과정 등을 거친 후 상담 인력이 연락처, 가구 정보 등을 유선으로 확인하여 온라인 접수시스템에 필요 정보를 대

신하여 입력한다.

접수 완료 여부는 카카오킬링톡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도 병행한다.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10일 18시까지 원하는 시간 언제든 접수 가능하다. 모바일에서 접속하거나 크롬(chrome) 브라우저를 통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이번 2단계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대상은 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기준)하는 가구소득이 기존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천6백만원 이하인 가구이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별도의 서류 없이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와 연락처, 가구원 수 등 간단한 정보만으로 쉽게 접수할 수 있다. 세대주 뿐만 아니라 가구 구성원 누구나 접수할 수 있으나, 한 가구당 온라인 또는 콜센터를 통해 한 번만 접수할 수 있다.

2단계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6개월

간 2차례의 무작위 선정 절차를 거쳐 지원집단 1,100가구를 선정하며, 모든 선정과정은 복지·통계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모니터링단 입회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진다. 1차(15,000가구) 선정결과는 2월 16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6월말 최종 지원집단이 결정되며, 선정된 가구(1,100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복지포털이나 서울 안심소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수연 복지기획관은 "고령층 등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전화접수를 병행하여 실시한다."라며 "금번 2단계 사업은 일반적 복지혜택에서 벗어나 있던 기존 중위소득 50~85%까지 참여가구 폭을 넓혀 추진하는 새로운 시도이다."

온라인과 전화접수를 받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께서 안심소득 정책

실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시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소득 양극화 및 복지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4차 산업 혁명 일자리 구조 변화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고자 새로운 미래 소득보장 모델인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단계 시범사업 500가구를 선정했으며, 7월부터 급여를 지급 중이다.

안심소득은 기존소득과 가구소득을 비교하여 부족한 금액의 절반을 지원해 주는 형편이 어려울수록 많이 지원하는 하위상향형 소득보장 모델로, 고용 빈민, 청년실업 등 새로운 위험집단으로 부상되고 있는 계층까지 폭넓게 포용할 수 있으며, 선별적 차등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복지 구현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최광수/기자



# 문 열기전 떠나는 은밀하고 신기한 동물탐험 에버랜드 '윈터 굿모닝 사파리', 겨울방학 체험학습 인기

- ◇ 맹수들의 아침 일상, 인리치먼트 등 새로운 고객경험 호평
- ◇ 고객 설문조사 역대 최고치 기록... 전 항목 만점 가까워
- ◇ 추억의 호랑이 버스 탑승, 빠른 스마트 줄서기 이용도 한몫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사장 정해린)이 운영하는 에버랜드 '윈터 굿모닝 사파리 투어'(이하 굿모닝 사파리)가 겨울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의 체험학습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실제 이용객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체 설문조사에서 만족도, 재이용 의향, 주변 지인 추천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99점 이상을 기록하며 만점에 가까운 고객 평가를 받고 있는 것.

동물, 식물, 어트랙션, 공연 등 에버랜드의 각 콘텐츠별 고객 만족도가 보통 90점 내외 수준으로 나타나는 걸 감안하면 '굿모닝 사파리'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실감할 수 있다.

□ '굿모닝 사파리'는 에버랜드 오픈 전 정문에서 사파리 버스를 타고 사파리월드로 빠르게 이동해 호랑이, 사자, 불곰 등 겨울왕국 속 맹수들을 가까이서 생생하게 관찰하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에버랜드 이용권과 별도로 인당 3만원의 참가비가 있지만, 겨울방학을 맞은 어린이 동반 가족들을 중심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고객들의 자발적인 체험 후기와 인증 사진들이 온라인에 올라오고 있다.

□ 에버랜드 동물원은 이번 '굿모닝 사파리' 인기가 기획 단계부터 철저하게 고객경험 관점에서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주효했다는 설명이다.

먼저 이번 체험에서는 아무도 없는 사파리월드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아침식사를 마치고 활기차게 활동하는 호랑이, 사자 등 쉽게 볼 수 없었던 맹수들의 아침 일상 모습을 가까이서 오랫동안 지켜볼 수 있다.

먹이를 먹기 위해 5미터 높이 나무를 훌쩍 뛰어 오르거나 피 묻은 동물 조형물에 숨겨진 생고기를 찾아 먹는 등 맹수들의 야생 본능을 일깨우는 다양한 인리치먼트(행동 풍부화) 활동도 사파리 곳곳에서 관찰할 수 있다.

□ 사파리 트램의 등장으로 지금은 추억 속으로 사라진 호랑이 버스를 다시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인기 요인이다.

고객들은 정문에서 대기시간 동안 호랑이 버스 앞에서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고, 호랑이 버스를 타고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는 에버랜드 직원들의 은밀한 통행길을 따라 사파리월드까지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호랑이 버스 안에서는 탐험대장이 동승해 고객들이 만져 볼 수 있도록 실제 호랑이 수염과 얼굴뼈 등을 보여 주고, 약 25분간의 사파리 탐험 시간 동안 각 동물별 생태 습성과 특징에 대해 생생하게 설명해준다.

□ 이외에도 '굿모닝 사파리'에서는 에버랜드 오픈 전에 이용권 체크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트랙션 현장 예약 제도인 온라인 스마트 줄서기를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굿모닝 사파리'는 겨울방학 기간에 맞춰 2월말까지 매주 목요일에 운영되며, 하루 60명까지만 에버랜드 홈페이지(www.everland.com)에서 선착순 예약할 수 있다.

□ 한편 매일 5종 5천여 마리의 나비를 가까이서 관찰하고, 앞에서부터 에벌레, 번데기, 성충까지 나비의 한살이 과정을 생생하게 배워 볼 수 있는 '라이브 나비체험관'도 겨울방학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함께 이용하기 좋다.

에버랜드는 동물, 식물, 어트랙션 등 파크 콘텐츠와 인프라를 연계해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조혜영/기자



# 관악구, 2023년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 주민안전과 청정삶터 지킨다

##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유관기관과 공조체계 구축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2023년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산불방지 비상근무 체제로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한다.

산불 취약시기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지상진화대를 중심으로 3개반을 구성하여 관내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평일 및 공휴일에도 24시간 감시체제를 유지한다.

지난 1월부터는 10명의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를 운영하여 현장에서 산불감지와 산불방지를 게도하고 있으며 375명의 산불진화인력을 동원, 전문 및 보조 진화대를 편성해 산불 발생 시에 초동 대처한다.

산불진화 차량과 등짐펌프 등 13종 1,081점의 진화 장비를 구비하고 관악산 연주대와 삼성산 등 주요 산 4개소에 CCTV를 설치, 관악구 통합관제센터와 관악소방서에서 실시간 산불감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구는 소방서와 군부대, 인접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로 산불



발생 시 진화 행기를 신속 지원하는 등 산불 발생 골든타임 내 진화 체계를 마련하여 신속한 대응 태세를 갖춘다.

관악산입구 등 방문객이 많은 곳에서 산불예방을 적극 홍보하고 오는 3~4월에는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맞아 캠페인도 펼친다. 또한 산불 진압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

해 관악소방서와의 합동 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산불발생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효율적 진화 활동으로 산불 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주민들께서도 봄철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 금천구, 고독사 예방과 24시간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AI 스피커 사업 시범운영

금천구는 2월부터 고독사 예방과 24시간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고독사 고위험 1인 가구 100명을 대상으로 AI 스피커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AI 스피커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1인 가구에 AI 스피커 누구(NUGU)를 보급하고, 이를 통해 24시간 긴급 SOS 서비스, 감성 대화(말벗), 음악 재생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금천구는 실태조사 결과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중 '고독사 고위험군' 100명에게 AI 스피커를 보급하기 위해 지난 1월 재단법인 행복커넥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상자가 '살려줘', '구해줘' 등 위험신호를 보내면 24시간 운영하는 관제센터에서 즉시 119에 연계해 구조할 수 있다. 24시간 긴급 SOS 서비스 이외에도 감성 대화(말벗), 음악 재생, 부정적 단어 사용 시 심리 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48시간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안부 확인을 할 수 있게 돼 상시 돌봄 기능을 강화했다.

금천구는 그동안 헬로우안심모바일, AI전화안부서비스 운영과 함께 야간·공휴일 위급상황 대응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스마트플러그 야간·공휴일 관제를 시작했다.

아울러 이번 AI 스피커 사업까지 더해 1인 가구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최민식/기자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AI 스피커 사업을 통해 24시간 응급상황 대응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라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주민들이 나 혼자 아닌 이웃과 함께 살기 좋은 따뜻한 금천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인공지능 스피커 + Wi-Fi ]



### 김보라 안성시장, “통합적 평생교육 정책을 펼치겠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공주시 평생교육정책 포럼’에 참석하여 “안성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통합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공주시와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공주한옥마을에서 지난 3일 개최한 포럼은 지난해 ‘한국-유럽 학습도시 교류 서밋’에 참가한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원 자치단체장과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국외 연수를 평가하고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협력에 관한 정책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김보라 안성시장은 “안성시 평생교육 활성화와 제

거적인 교육 제공을 위해 통합적 평생교육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며 “한국-유럽 학습도시 교류 서밋에서 배운 것과 더불어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원 지자체와 협력하여 안성시도 글로벌 평생학습도시로 도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럼은 2022년 국외연수 활동 보고, 단체장들의 토론 등으로 진행됐으며, 박승원 광명시장, 최원철 공주시장, 권익연 부안군수, 김미경 은평구청장, 이재준 수원시장, 김이강 광주서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조혜영/기자

## 경기도 통합교통플랫폼 ‘똑타’ 7일 출시. 파주 등에서 운영 실시

### ‘똑타’ 2월 7일 사업 개시…똑버스, 공유PM 서비스부터 시작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가 입주 초기 신도시나 농어촌 지역 등 버스 운행이 드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서 타는 수요응답형 버스(DRT)와 최근 유행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검색·결제 등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통합앱 ‘똑타’를 출시했다. 연말까지 택시와 지하철 등 다른 대중교통수단과도 연계를 시도하는 한편 대상 시·군도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는 7일 수요응답형 버스(DRT),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등 교통수단의 호출은 물론 예약과 결제를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해결하는 통합교통플랫폼 ‘똑타’를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똑타’는 경기도의 통합교통정보 서비스를 이용해 ‘똑똑하게 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도와 공사는 지난 2021년부터 미래 모빌리티 활성화 정책의 하나로 현대자동차와 앱 개발을 추진해 이번에 출시됐다.

출시된 ‘똑타’는 우선 수요응답형 버스(DRT) ‘똑버스’ 10대,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전동킥보드 1만 3천여 대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똑버스’는 파주 운영에서 지난 2021년부터 운행하고 있으며, 운행 범위 안에서 도민들의 실시간 호출에 따라 승차지점과 경로를 유동적으로 변경하는 합승 기반 서비스다. 사용자가 똑타를 통해 호출을 하면 해당 버스가 경로를 변경해 사용자가 원하는 곳으로 도착한다. 한 번에 최대 5명까지 호출할 수 있고 교통카드를 등록해 대중교통 환승할인도 적용된다.

도와 공사는 파주를 시작으로 올 상반기까지 8개 시·군에서 똑버스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다른 시·군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전동킥보드는 1개 업체와 연계해 수원 등 15개 시·군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별도 외부 앱 다운로드 없이 ‘똑타’로 탑승-결제를 할 수 있다. 향후 외부 연계 업체를 계속해서 확대해 경기도 전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혜영/기자



### 임태희 교육감 “학교 현장의 목소리, 경기교총과 함께 듣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힘쓸 것”



### 경기도의회 임종현 의장 “성공의정 위한 사무처 직원들의 적극 지원 당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6일 경기도 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함께 학교가 교육 본질에 집중하는 여건 마련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남부청사에서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주훈지, 이하 경기교총)와 2022년 교섭·협약의 합의서 조인식을 열었다. 도교육청은 지난 7월 경기교총의 46개 조 59개 항의 교섭 요구안을 접수하고, 11월부터 총 14차례 실무교섭을 거쳐 42개 조 53개 항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교원 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 ▲교원 복직 및 근무여건 개선 ▲교원 및 교원 전문성 신

장 ▲ 교육 환경 개선 ▲ 교원단체 지원 사항이다.

이 자리에서 임 교육감은 “경기교총이 경기도교육과 대한민국 교육 현장에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며 “교육환경의 변화를 앞두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일이라면 합의 내용은 물론이고 그 밖에도 경기교총과 힘을 합치는 파트너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현장의 여러 목소리를 경기교육의 정책에 가감 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경기교총이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며 마무리했다.

조혜영/기자

### 시흥시, 청소년자치기구 및 동아리 참여 청소년 대거 모집

(제)시흥시청소년재단의 산하 청소년기관에서 청소년자치기구 및 동아리 신규 참여 청소년을 2월부터 약 한 달간 모집한다.

산하 청소년 기관은 △시흥시청소년수련관 △꾸미청소년문화의집 △능곡청소년문화의집 △목감청소년문화의집 △배곧1청소년문화의집 △배곧2청소년문화의집 △월곶청소년문화의집 △연성청소년문화의집 △정왕청소년문화의집 △군자청소년문화센터 △매화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시흥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총 14곳이다.

청소년자치기구는 청소년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한 권리 실현과 다양한 꿈·끼 개발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이며,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로 나뉘져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시흥시의 청소년정책을 만들고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기구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시설 운영에 참여하며 지역사회 대표로서 청소년 관련 정책에 참여하

고 있다.

청소년자치기구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시흥시의회 간담회, 소속 기관 시설 운영 등 다채로운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 시간 인정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청소년동아리는 댄스, 밴드 등 문화예술 역량 향상을 위해 자율적으로 모인 청소년모임으로 재단 내 각 시설에서는 자율동아리뿐만 아니라 봉사, 미디어, 후기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의 특성과 동아리를 모집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동아리와 특성화 동아리에 참여하게 되면 축제, 페스티벌, 대회 등 다양한 활동에 참가할 뿐 아니라 축제 기획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덕희 시흥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는 “청소년자치기구 위원들과 청소년동아리원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 2023년에도 청소년들을 위한 시흥시를 완성하는 데 함께할 수 있는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신성용/기자

###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최대 5억원 용자 추천

성남시는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경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시는 기업당 최대 5억원의 육성자금을 용자받도록 협약 은행(7곳)에 추천하고, 대출이자 2~3%를 지원하는 사업을 편다.

대상 기업이 인건비, 원자재 구매비 등의 운전자금을 해당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기업이 내야는 대출이자 중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남시가 3년간 대신 내준다.

호우 등 재난 피해를 본 기업은 3%에 해당하는 이자액을 3년간 성남시가 부담한다.

대출이자 지원을 위해 시는 올해 2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본점이나 사업장을 둔 기업 중에서 ▲전체 매출액에 대한 제조업 비율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기업 ▲성남시 전략산업 기업 중 연간 매출액 30억원 미만인 업체다.

지원받으려면 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기업→중소기업지원→자금지원)를 참조해 협약 은행과 용자가 가능 여부를 상담받은 뒤 해당 은행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부동산 담보력이 없어 은행에서 육성자금을 대출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최대 3억원의 특례보증 지원을

받는다.

특례보증은 영세기업을 대신해 성남시가 보증을 서 줘 금융기관에서 무담보로 자금을 빌려 쓸 수 있게 한 제도다.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올해 8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특례보증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다. 특례 보증 기간은 3년이다.

특례보증 희망 업체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에 내야 한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심사를 통과하면 은행에서 경영자금을 용자받을 수 있는 신용보증을 발급해 준다.

성남시는 지난해 109곳 중소기업에 280억원의 육성자금 대출을 은행에 추천하고 20억원의 이자를 지원했다. 부동산 담보력이 없는 68곳 기업은 97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했다.

이성열/기자



### 경기도 2기 레드팀 구성 후 첫 정기회의로 공식 활동 시작

경기도 2기 레드팀이 지난 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레드팀은 도민 입장에서 비판적 시각으로 경기도정을 뒤집어 보여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2기 레드팀은 팀장, 부팀장을 제외하고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내부 공모를 통해 총 23명이 지원해 6급 이하의 젊은 직원으로 6명(도청 4명, 공공기관 2명)을 선발했고, 나머지 4명은 활동의 연속성을 위해 1기 레드팀원 중 활동이 우수한 직원을 재선정했다.

이영주 레드팀장은 “2기 레드팀원 모집 때 재지원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다”며 “더 많은 의견, 더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소속, 부서, 직렬, 연령 등을 골고루 안배해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팀원들이 선정된 후 처음 만나는 공식적인 자리로 2기 레드팀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회의 개최와 안건, 활동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2기 레드팀은 심도 있는 활동을 위해 격주로 진행됐던 1기 때와는 달랐던 달에 1번 모여 소통하는데, 제안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실무부서와도 함께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활동기간은 오는 6월까지이며, 주제는 사회적 쟁점과 도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도정 현안과 자유주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대안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안건 발굴을 위해 경기도민청원 게시판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도민 입장에

서 레드팀 안건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운영했던 1기 레드팀은 그동안 ‘청사 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반려동물 테마파크 운영방안 개선’ 등 17개 주제에 대해 총 95건의 제안을 실무부서에서 59건이 수용됐고, 27건이 불수용, 9건은 일부 수용 및 협의 중이다. 레드팀은 제안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레드팀의 주요 성과로 ‘청사 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해서는 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 및 다회용 컵 대여·수거·체적 체계가 구축돼 작년 12월부터 운영 중이고, 올 1월부터는 도청사, 2월은 도의회, 3월부터는 북부청사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외부인 응

조혜영/기자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농업인이 ‘손바닥정원’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태달라”

## 수원시농업기술센터, ‘2023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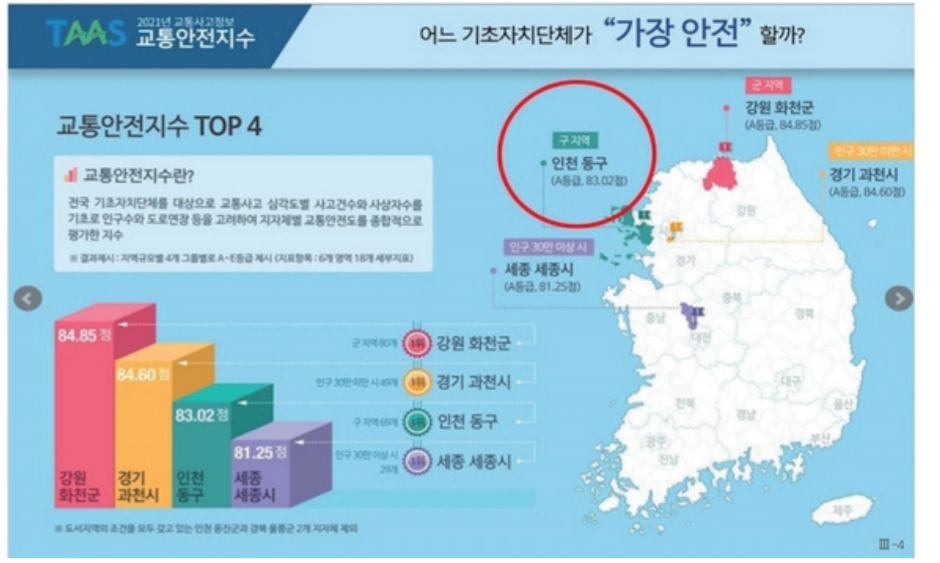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농업인들이 ‘손바닥 정원’ 사업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준 시장은 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벼농사 과정)’에 참석해 “수원시는 공동체가 중심이 돼 도시 곳곳에 정원을 조성하는 손바닥 정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농업인들께서 도움을 주시면 성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시민 주도로 도시 곳곳에 정원을 조성하는 ‘손바닥정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마을 공터, 자투리땅, 유휴지 등 도시의 빈 공간을 찾아내 시민 공동체가 꽃과 나무 등

을 심어 정원을 만드는 것이다. 수원시농업기술센터는 1월 13일부터 2월 3일까지 관내 농업인, 귀농·귀촌 희망자, 도시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2023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진행했다.

‘고추’ 과정으로 시작해 ‘포도’, ‘시설채소’, ‘생활개선’, ‘블루베리’, ‘화훼’, ‘벼농사’, ‘도시농업’ 등 8개 과정을 운영했다. 전문강사가 각 작물 재배 기술을 설명하고, 공익직불제 교육을 연계

했다. 농정 현안 과제도 홍보했다. 2일 열린 벼농사 과정 교육에는 농업인 200여 명이 참석했다. 국립식량과학원 강신구 연구사가 ‘정다미’ 벼 재배기술을 설명했다. 조혜영기자

# 인천 동구, 교통사고 사망 제로 교통안전도시로 거듭나



인천 동구가 교통사고 사망 제로를 달성, 교통안전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동구는 지난해 연말 도로교통공단 이 발표한 전년도(2021년) 기초자치단체별 교통안전지수에서 69개 구 그룹 중 83.02점으로 A등급을 받아 전국 1위를 차지하고,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인천 중부경찰서 자료 기준)도 달성했다고 밝혔다. 교통안전지수란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심각도별 사고건수와 사상자 수를 기초로 인구와 도로연장을 고려해 지자체별 교통안전도를 평가한 지수다. 구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 2019년 3명, 2020년 4명, 2021년 4명이었지만 2022년도에는 0명으로 올해 연말에 발표되는 2022년도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교통안전지수에서도 최상위 순위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 기존 사업을 확대하고 신규

사업을 추진해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확연하게 줄일 계획이다. 구는 우선 지난해 인천시 주·정차 환경개선 평가 1위로 선정돼 교부받은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을 투입,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 횡단보도와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또 교통사고가 잦은 이마트 트레이더스 거거리 등 5개소의 사고를 분석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개선해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줄이고, 교통안전지수 중 취약한 보행자 부분을 향상시키기 위해 캠페인 및 교통안전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개신창래의 마음으로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끊임없이 새롭게 바꾸고 개선해 주민 안전에 중요하고 생활과 밀접한 교통 분야부터 바로잡아 안전하고 편안한 동구를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주민 안전만족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충남기자

## 평택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운영자금 1% 저금리 융자 지원

평택시는 고물가 및 금리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식품위생업소 용자사업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생산시설 개선을 원하는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최대 1억원을 금리 1%,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화장실 시설개선이 필요한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2,000만원을, 운영자금이 필요한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는 최대 3,000만원을 금리 1%,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또,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운영자의 경우, 인건비와 시설·관리에 필요한 임대료 등 고정지출에 활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을 최대 2천만원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한다.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주는 평택시 농업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먼저 상담하고 융자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평택시청 식품정책과에 내면 된다. 신청서 등 필요서류는 평택시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및 고물가, 금리인상 등으로 침체된 식품위생업소 대상 용자사업을 추진하여 경제 활성화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양시현기자

## 2023 계묘년 오산 정월대보름 큰잔치 행사 풍성

### 3년 만의 대면행사, 1만 여명 몰려 성료

경기 오산시는 지난 4일 오산천변(오산종합운동장 뒤편)에서 ‘2023 계묘년 오산 정월대보름 큰잔치’ 행사를 많은 인파 속에서도 안전하고 질서있게 마쳤다고 밝혔다. 오산 정월대보름 잔치는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취소 또는 비대면으로 추진되어 많은 시민들이 아쉬워했던 만큼 행사 시작과 동시에 남녀노소 인파가 몰려 추위를 잊은 채 세시 풍속을 즐겼다. 행사를 주관한 오산문화원은 옷놀이, 연날리기, 제기차기, 투호놀이와 곤장과 주리 같은 이색체험과 먹거리 장터에서 오곡밥도 먹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오산문화원은 특히 예년에 해오던 강동돌리기를 LED 쥐불놀이로 대체해 최대한 환경을 훼손하지 않아 창의적으로 전통을 전승했다는 평을 받았다. 한편, 시민대화합 줄다리기를 통해 코로나19로 흐릿해졌던 협동과 단합이라는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코로나19 3년 동안 각자 자리에서 묵묵하게 방역에 협조해주신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만남과 어울림이 뚝뚝했던 시간의 고리를 끊고 이제 다시 화합과 소통을 통해 2023년 모든 시민이 평안하고 무탈하게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말한 한편 “이번 행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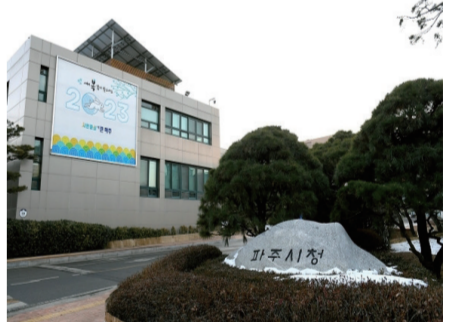
끝까지 질서있게 참여해주신 시민여러분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돋보였던 행사다”고 전했다. 오산 정월대보름 행사에는 오산문화원을 주축으로 오산문인협회, 오산선후배연합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교통봉사대, 집수리봉사단, 지음봉사단, 서양동거북진놀이팀, 프리마켓과 오산시사회적기업협의회, 오산시모범운전자회, 오산시자율방범연합대 등이 참여했다. 양시현기자

또 관내 오산조은병원과 한국병원에서 유사시를 대비해 앰블런스를 지원했으며 오산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를 지원했다. 그 밖에도 오산경찰서와 오산소방서가 안전을 책임졌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주차관리를 돕는 등 총 180여명의 안전관리요원이 동원되어 역대 최대 행사안전관리 조직으로 운영됐다. 양시현기자

## 파주시, 경기도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 공모 선정

파주시는 지난달 31일, 경기도에서 공모한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를 통해 파주시는 경기도 북부 최초로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시스템을 마련해 해당 피해 발생 시 관련 기관의 개별 대응 한계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전문상담사, 통합사례관리사 및 파주경찰서 파견 학대예방경찰관으로 구성된 공동대응팀은 추경예산편성, 전문인력 채용 및 기자재 구입 등을 통해 파주시청 여성가족과 내에 설치되며, 올 상반기 개소를 목표로 한다. 공동대응팀은 112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의 초기대응 이후 피해자에 대한 전화상담, 필요시 현장 방문, 법률상담, 공공·민간서비스 및 지원기관 연계 등

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경기북부 최초 공동대응팀인 만큼 빠른 설치와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피해자 중심의 긴급대응·사례관리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시민중심의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영기기자



2023년 신년화두

# 新 定 安 民

신정안민 | 새로운 수원, 편안한 시민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 영주시 선비세상, '군자를 품은 마음, 매화전' 개최

## 한옥촌 기획전시실에서 10일부터 19일까지, 열흘간 운영

영주시 선비세상은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열흘간 군자의 향기를 전하는 '군자를 품은 마음, 매화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선비세상 내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의 매화원인 한국선비매화공원과 함께 진행된다. 2천여 그루의 매화 수목 중에서 선별된 매화 분재 20여 종을 선비세상 한옥촌 기획전시실에서 전시한다.

'봄을 기다리다', '봄을 알리다', '봄을 기억하다' 3가지 테마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추운 겨울을 이기고 꽃과 향을 피우는 매화의 기품 있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 연계 프로그램으로 매화 꽃차 다도체험, 구구소환도(九九消寒圖), 매화꽃 만들기, 매화꽃을 이용한 스페셜 쿠키 클래스 등을 함께 운영한다.

매화는 엄동설한에 꽃을 피우고 질은 향을 내는 선비정신을 상징하는 꽃으로 삼촌 신흥(申興)은 수필집 야언(野言)에서 매화의 덕을 '매일생한 불매향(梅一生寒不賣香)'이라고 칭송했다.

이는 '평생을 추운 곳에서 있어도 매화는 그 향기를 팔지 않는다'는 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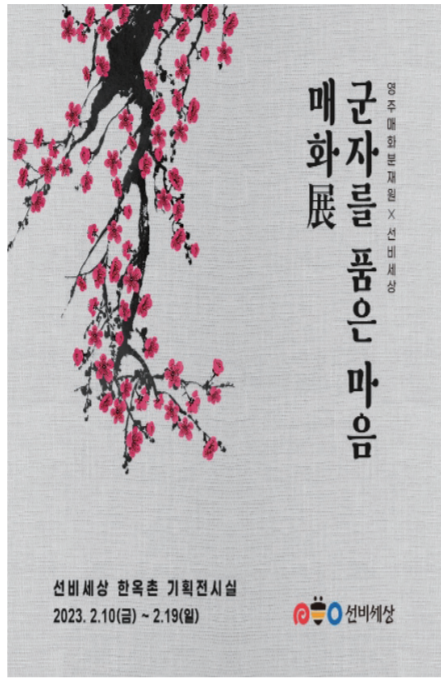
으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칙과 소신을 굽히지 않는 강직한 선비정신과 같다. 역사 속에서 선비의 사랑을 받아 온 매화는 청빈하게 살아가는 선비의 꽃으로 매년국축사군자 중 으뜸으로 꼽힌다.

지난해 9월 개장한 영주 선비세상은 한옥, 한복, 한식, 한지, 한글, 한음악이라는 6개의 우리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최첨단 인터랙티브 기술을 활용해 보고, 입고, 먹고, 배우고, 즐기면서 우리 문화와 선비정신을 폭넓게 체험할 수 있는 국내 유일 K-문화 테마파크이다.

영주시는 선비세상을 방문하는 유료 입장객에게 영주사랑 상품권을 제공해 입장권 구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개인 입장객의 경우 어른은 1만5천원 입장료에 5천원 상품권을, 청소년 1만2천원 입장료에 4천원 상품권을, 어린이와 경로는 1만1천원 입장료에 4천원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영주시민과 단체(20명 이상)의 경우 어른은 1만1천원 입장료에 4천원 상품권을, 청소년 9천원 입장료에는 3천원을, 어린이와 경로는 8천원 입



장료에 3천원 상품권을 지급해 많은 관광객이 선비세상에서 한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밖의 관람과 관련한 사항은 선비세상 종합안내소로 문의하면 된다.

윤근수/기자

# 경주시 천원행복택시, 주민과 택시업계 큰 호평

## 대상지역 125개 마을 주민 누구나 1,000원이면 읍면동 소재지까지 추가요금 없이 이동편리

경주시가 대중교통 혜택이 어려운 벽지마을 주민들의 교통서비스 일환인 '1,000원 행복택시'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는 주낙영 경주시장의 민선7기 오지마을 '천원콜택시' 바꾸어 제도 도입 공약이기도 하면서 70세 이상 어르신 기본요금 무료택시와 함께 주민들에게는 교통복지 서비스를, 코로나 등으로 힘든 택시업계에는 경영안정 등 일거양득 소확행 사업이다.

시는 오지마을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2018년부터 행복택시 운영계획 수립, 관련 조례 제정, 시범구역 선정 등을 거쳐 2019.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행복택시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읍면과 도농복합지역 주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이용자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탑승권 1매와 1,000원만 내면 자택이나 마을회관 등 마을 중심지에서 읍면동 소재지까지 추가요금 없이 편리하게 이동하는 제도로 본인 부담 1,000원을 제외하고 부족분은 시에서 충당한다.

대상지역은 동경주 포함 9개 읍면과 불국.선도.월성동 3개 도농복합지역 등 총 12개 지역 125개 마을에 2,493세대 4,071명이 해당되며, 개인 및 8개 법인택시 모두가 참여하고 있다.

운영 지역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이용객 불편사항 등을 고려하여 시내버스 운행여부, 읍면소재지와 버스승강장과 500m 이상 이격, 읍면동



소재지까지 거리 등 종합평가 하여 엄선했다. 또한 선정마을 거주자는 연령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1가구당 분기별 탑승권 15매(월 5매×3개월)를 기본적으로 배부하고 부족한 가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배부하고 있다.

행복택시 첫 도입시기인 2019년 7,336회를 기점으로 2020년 18,768회, 2021년 31,308회, 2022년 65,410회로 4년간 총 122,822회를 이용했으며, 택시업계 운행손실금은 2019년 56,278천원에서 2020년 159,477천원, 2021년 268,684천원, 2022년 606,526천원으로 4년간 총 1,090,965천원이 지원되어 주민 이동편의와 업계 경영안정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올해는 시비 550,000억 예산으로 행복택시를 운영한다.

천원 행복택시 이용률이 높고, 벽

지지역 주민의 교통발이 될 수 있었던 것은 2022. 1월부터 이용요금을 1,3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리고 탑승인원 2인 이상 규정 폐지, 읍면소재지와 2.5km 이상 이격과 반경 500m 이내 버스승강장 유무 폐지 등 현장 불편사항을 과감히 개선한 결과이며, 특히 장날, 봄.겨울철에 어르신들의 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이용 불편이 발생할 경우 가능한 의견반영, 재검토 등을 거쳐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대중교통 불편.소외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대 큰 이동불편 없이 읍면 소재지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천원행복택시처럼 소확행 사업을 더욱 발굴하여 시민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타용/기자

# 예천군, 지방상수도 소외지역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 추진

## 상수도 관련 분야 103억 원 투입해 스마트 물 관리 도시 만들기 총력

예천군은 올해 상수도 관련 분야에 103억 원을 투입해 미급수 지역에 스마트 상수도 기술을 적용한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추진한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3개소 7억 원 △지방상수도 노후관 갱생 1개소 2억 원 △식수난지구 설치 및 시설개량사업 7개소 15억 원 등을 추진해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으로 주민 숙원 해소는 물론 건강 증진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방상수도 보급이 어렵고 산간 지역에 위치해 전문관리자의 관리와 보안이 취약한 소규모수도시설에 IT기술로 운영관리를 개선하는 등 모든 군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질이 불량하고 수량이 부족한 효자면, 은풍면 14개리에 4년에 걸쳐 263억 원, 용문면 선리 지역에 19억 원을 지원해 예천



정수장 여유량을 2026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향후 노후정수장 현대화사업으로 준공된 예천정수장을 개방해 안전하고 맑은 수돗물 생산 과정을 군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신뢰도 향상과 용용률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은 지난해 환경부 주관 '2022년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행 평가'에서 전국 168개 수도사업자 중 2년 연속 A등급을

받아 포상금 5백만 원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지방상수도 방송공급망 구축사업 102억 원 △IT기술을 활용한 안정적인 소규모수도시설 운영관리 및 보안시스템 구축사업 6천만 원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 등 18억 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170억 원 △자산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2억 원 사업비를 투입하는 등 물복지 기반을 확충했다.

윤근수/기자

# 울릉 눈 축제 가능성 실험무대 최고점으로 통과

지난 2월 3일부터 5일까지 총 3일간 열린 '2023년 울릉도 눈 축제'에 1,000여 명의 관광객과 주민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종료되면서 대내외적으로 발전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가공되지 않은 순수자연 눈을 활용한 눈썰매장과 이색 눈사람 만들기, 썰파-대나무스키 체험, 크로스커티리, 눈길 트래킹 등 신비롭고 아름다운 울릉도 겨울 모습을 만끽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들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앞으로 울릉군은 축제의 주요 장소인 나리동 주민을 포함한 모든 울릉주민과 여객선사, 관내 교통 및 여행업체 등과 함께 협동하여 눈 축제를 준비하고, 다양한 후원을 받아 울릉도의 겨울과 나리분지의 경이로운 대자연을 어필

게 보여줄 것인가를 심도 있게 고민하여 새로운 울릉도 대표 축제를 육성할 계획이다.

남관권 울릉군수는 "눈 축제를 겨울 대표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다양한 볼거

리와 즐길거리들로 많은 사람들이 힐링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업그레이드 된 2024년 울릉도 눈 축제를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

정현중/기자



# 경북교육청, 문경시 청송군, 칠곡군과 경북미래교육지구 업무협약 체결

## 경북미래교육지구 3곳 추가, 총 8곳 운영

경북교육청은 6일 웅비관에서 지난해에 기초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한 문경시, 청송군, 칠곡군과 미래교육지구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

경북미래교육지구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지역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따뜻한 경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경북교육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이 사업은 지난 2020년 5곳(의성, 상주, 예천, 안동, 경주)을 시작으로 운영해오면서 교육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지방 소멸 위기와 지역 인구 감소,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하는 미래교육의 하나로 각광받고 있다.

지역 인구 유출의 큰 이유가 양질의 일자리와 우수한 교육·육아·보육환경의 부족으로 여겨지고 있는 만큼, 이 사업은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아이 돌봄 육아문제, 지역교육환경 격차에서 오는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의 교육격차 해소 문제, 맞벌이 가정 등 생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님들에게는 방과후 아이 돌봄에 대한 부담을 들어



지역인구 유출을 방지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의 만드는 데 이 사업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교육청과 기초지자체가 각각 연 2억 원을 부담해 4년간 운영되는 이번 사업은 두 기관 협의를 통해 연장 운영이 가능하며, 경북교육청은 매년 3~5곳을 추가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경북 도내 전체로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과 함께 아이들에 대한 돌봄과 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미래교육지구 확대 운영을 위해 기초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경북소방본부, 배울수록 안전해지는 소방안전교육 확대



경북소방본부는 도민 안전을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확대·운영한다.

경북소방본부는 코로나19 시기에 비대면 방식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지속해서 진행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3,926회 24만8천608명에게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올해는 전체 도민의 약 10%인 26만 명 이상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방안전교육은 화재안전, 생활안전, 재난안전, 응급처치법 등으로 도내 소방서에 설치된 21개 상설교육장, 119이동안전체험차량(4대)에서 도민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소방안전교육 주요 사항은 △연령대별로 세분화된 교육방식 △메타버스 활용 비대면 체험교육 △행복△소방서 안전교육 확대 등이다.

아울러 민관 협업, 장애인·노인 복지시설 등 거점시설과 연계해서도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영팔 경북소방본부장은 "소방안전교육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타인까지 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교육"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 '청년 창업가 든든한 버팀목' 포항 청년 창업 LAB, 맞춤형 창업컨설팅

창업·경영, 부동산·세법, 인사·노무, 세무·회계, 마케팅·디자인, 상표권·특허 6개 분야



포항시 청년 창업 LAB은 청년 예비 창업자와 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2월 6일부터 12월 1일까지 '창업컨설팅' 참여자를 수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창업컨설팅'은 분야별 전문가와 매칭을 통해 창업 준비기간 및 창업 후 운영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예비창업자들은 체계적인 창업 준비를 가능하도록 돕고, 기 창업자들은 사업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창업 전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어려움에 대해 일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1:1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부동산·세법 △인사·노무 △세무·회계 △마케팅·디자인 △상표권·특허 6개 분야로, 신청 비용은 전액 무료이고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청년 창업 LAB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경험이 없는 창업자와 예비창업자는 초기 운영 애로사항과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이번 컨설팅 프로그램으로 청년 창업가들의 분야별 애로사항을 조기에 해결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는 데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윤타용기자

## 달성군, 2023 계묘년 '정월대보름 달맞이 문화제' 성료



달성군은 지난 5일 2023 계묘년 정월대보름을 맞아 농공을 달성군민운동장에서 '정월대보름 달맞이 문화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4년 만에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주민 3,000여 명이 참가하여 전통 세시풍속을 즐기면서 올 한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이번 행사에는 군민의 안녕과 지역 발전을 염원하는 기원제, 오색소원지 쓰기, 가훈씨주기, 민속놀이 체험, 초청가수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가 마련됐다. 특히, 오후 7시경 펼쳐진 달집태우기와 폭죽 불꽃놀이는 대보름 밤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하여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재훈 달성군수는 새해맞이 덕담으로 "민족 고유의 명절인 정월대보름을 맞아 오랜만에 개최하는 달집태우기 행사를 통해 힘들었던 지난날의 액운은 모두 활활 태워버리고, 계묘년 희망찬 새해에는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 대구시교육청, 2023년도 자체감사 계획 발표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제도개선·문제해결 중심의 감사를 통해 학교현장을 지원하고, 청렴한 대구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2023년도 자체감사 계획'을 발표한다. 올해 대구시교육청은 기관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종합감사를 181개 학교(기관), 회계운영을 중점 점검하는 재무감사를 80개 학교(기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특정 취약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학교운동부 운영, ▲교육예산 집행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학교(기관)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을 집행할 경우, 사전에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진행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교육재정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특히, 올해 예산 5억 원을 투입하여 구축하는 지능화된 감사시스템을 통해 학교(기관)에서 다양한 감사 사례와 일상감사 지침·업무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여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자체 시정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술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기동감사반을 편성하여 설계도서와 현장시공의 적합성 및 적정성, 품질·안전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함으로써 공사비는 절감하고, 안전사고 및 부실공사를 예방하는데 힘 쓸 계획이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감사 수감기관에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안내하고, 상·하반기에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모를 실시하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성과상여금 우대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또한, 학부모·학교운영위원 등 교육수요자가 참여하는 학부모 감사참관인제와 명예감사관제 운영 등을 통한 열린 감사로 행정감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감사부서 간 월 1회 정례회를 개최하여 감사 기법 및 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더욱 공정한 감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올해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활발한 교육활동이 예상되는 만큼 제도개선·예방 중심의 감사를 통해 학교현장을 적극 지원하여 대구미래역량교육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부산시 벅스코 부대시설부지 활용, '글로벌퀀텀 콤플렉스 구축' 사업보고회 개최

양자컴퓨팅 중심 교육·연구개발(R&D)·비즈니스 플랫폼 조성, 미래도시 부산으로 퀀텀 점프

"퀀텀 컴퓨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부산시의 계획을 좀 더 확실히, 속도감 있게 진행 시키겠다." 작년 7월 미국 IBM의 양자컴퓨터 분야 총괄 제이 감베타(Jay Gambetta) 부사장이 부산을 방문했을 때 박형준 시장이 다짐한 말이다. 부산시는 오늘(7일) 오후 2시 시청 7층 영상회의실에서 '글로벌 퀀텀 콤플렉스 구축 사업보고회'를 열고, '부산의 퀀텀 이니셔티브(양자컴퓨팅 주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레이먼드 로우리 하인즈 아태지역본부 대표, 권지훈 한국퀀텀컴퓨팅주식회사(KQC) 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글로벌 퀀텀 콤플렉스 구축"은 ▲양자컴퓨터 활용 연구·교육·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기업 집적 및 창업 촉진 ▲기업 업무 및 편의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벅스코 부대시설 부지(해운대 우동 1502)에 최첨단 업무·연구복합건물을 건립하는 프로젝트이다. 그동안 부산시는 양자컴퓨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밑그림을 차분히 다져왔다. 특히, 지난해 10월 부산시의회에서 '해운대 벅스코 부대시설 부지 매각안'이 통과되고 지난달 1월 16일 해당 부지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면서, 아시아의 랜드마크가 될 '글로벌 퀀텀 컴퓨팅 콤플렉스 조성(2024년 착공, 2027년 완공 예정)'이라는 부산시의 원대한 계획은 글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본 부지의 매각 대



▲글로벌 퀀텀 콤플렉스 조감도

금은 1천8백9십억 원 가량으로, 올해 안에 잔금 완납 후 소유권이 이전될 예정이다. 해당 부지는 벅스코 부대시설 부지로서 그동안 현대백화점의 민간투자사업, 일본 세가사미사(社)의 호텔사업 등이 시도됐다 무산됐고, 이후 공모 과정에서 여러 차례 유찰을 거치는 등 시 소유 부지중 최대 노른자 땅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지난 10여년간 미활용 되어 부산시의 최대 난제 중 하나였다. 이에 부산시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기존의 호텔·관광 등 마이스(MICE) 산업 지원 성격의 부지를 양자(퀀텀) 컴퓨팅 중심의 글로벌 비즈니스 업무시설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을 작년 초부터 구상해왔다. 우선, 글로벌 부동산 투자 개발사

인 미국의 하인즈, 양자 컴퓨터 분야의 선두주자인 미국의 IBM, 양자컴퓨팅 상용화 전문기업인 한국퀀텀컴퓨팅주식회사(KQC)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미국 뉴욕의 IBM 양자컴퓨터에 클라우드 접근하는 IBM 양자컴퓨팅 허브 센터를 동서대 센텀 캠퍼스 내에 개소하는 등 그 밑그림을 착실히 다져왔다. 한편, 양자컴퓨터는 슈퍼컴퓨터로 1만 년 걸릴 문제를 200초 만에 해결하는 초고속 연산 컴퓨터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10월 스웨덴의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가 2022년 노벨 물리학상 공동수상자로 양자 컴퓨터 개발을 가능하게 한 양자물리학자 3명을 선정했으며, 이는 '양자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노벨도 인정한 것으로 IBM·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정보통신기술

(ICT) 기업이 왜 양자 컴퓨터 개발에 사활을 걸고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지에 대한 방증이기도 하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디지털 시대 전환을 넘어 양자 컴퓨터가 인류 문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날이 곧 다가올 것이라 믿는다"면서, "오늘 부산의 퀀텀 이니셔티브(Quantum Initiative : 양자 컴퓨터 주도권)의 시작을 알리며 동시에, 장기간 미활용된 온 공유재산 부지에 1조 3천억 원 가량의 대규모 자본을 유치하고 글로벌 기업의 입주 추진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신산업을 중심으로 부산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종진기자

## 의성·가바쌀 미국 수출 순항



의성군은 2일 서의성농협 유통사업소에서 기성쌀 팔인 가바쌀수출 선적 행사를 가졌다. 이번 가바쌀 수출은 2023년 세번째 선적으로 수출선적물량은 9.6톤(약3만달리)으로 미국 LA 지역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서의성농협의 가바쌀 수출은 2019년 31톤, 2020년 46톤, 2021년 52.4톤, 2022년 55.6톤으로 매년 물량이 늘고 있다. 올해는 현재 총32톤 수출하여 서의성농협의 수출이 계속 호조

를 나타낼것으로 기대된다. 서의성농협 가바쌀 수출 외에도 지난해에는 천환경 우렁이 쌀 18.9톤을 프랑스와 두바이에 첫 수출도 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수출로 고품질 가바쌀의 명성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 수출물량과 수출국가가 꾸준히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 통영시,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제도 시행

### 가스비 상승 등으로 난방비 부담이 어려운 가구 적극 발굴

통영시는 올해도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1억5천2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 6백만 원 이하로,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긴급복지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기준 생계비는 2022년 대비 5.47% 상향된 약162만 원이 지원되며, 긴급의료비의 경우 최대 300만원 금액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통영시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위기가구 1,252세대에 921,886천원을 긴급생계, 의료, 주거, 연료비 등으로 지원했으며, 올해는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연계해

특히, 전기요금, 가스비 상승 등으로 난방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이용준기자



## "액운 날리세요~" 봉화군, 정월대보름 달불놀이 행사 성료!

명호면 정월대보름 달불놀이 행사가 지난 5일 명호면 체육공원에서 명호청량조기회 주관으로 기관단체장,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식전 행사로 민민 화합 놀이, 주민 노래사랑, 초대 가수 공연, 드론공연 등을 진행해 주민 화합을 도모했으며 풍년기원제, 달집태우기, 북소리 나눠주기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면서 계묘년 새해의 풍년과 평안을 기원했다. 윤종필 명호청량조기회장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달불놀이 행사가 5년 만에 성공적으로 개최돼 감사드리며, 행사를 통해 모든 액운을 태워 날려 버리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한국 봉화군수는 "정월대보름을 맞이해 풍요로운 한 해를 기원하며,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화합 행사를 통해 결속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 마련되어 뜻깊다"며 "행사를 계기로 지역주민이 더욱 단합해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 김도현 안양시의원, 제1회 안양시 한국수어의 날 감사패 수상...

보이지 않는 장애가 외면 받지 않도록 할 것

안양시의원 김도현 의원(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은 2월 3일 '제1회 안양시 한국수어의 날'을 맞아 경기도농아인협회 안양시지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안양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전 부개정해 상위법인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취지와 용어를 반영하고, 장애당사자와 가족 지원, 수어통역 현실화,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 등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농아인협회와 수차례 간담회를 갖는 등 농인 인권 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지난해 12월, 2023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안양시의 수어통역 수당이 기준보다 낮게 편성된 것을 지적하면서, 수어통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이 중요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청각장애는 보이지 않는 장애이기 때문에 '편견과 무지의 폭력'에 쉽게 노출된다"면서 "농인들과 그 가족들의 삶이 외면 받지 않도록 관심과 노력으로 곁에 서겠다"라



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경기도농아인협회 최정수 안양지회장은 "평소 농인과 농사회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이해를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덕분에 안양에서도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이 마련됐다"라며 "안양시가 농인과 청인,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경계가 없는 화합의 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2015년부터 한국농아인협회 등과 협력해 농청년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한 바 있으며, 대한농아인체육연맹 자문위원,故김현철 수어통역사 추모위원 등을 지내며 농사회와 오랫동안 인연을 이어왔다.

신유용/기자

## 안산시의회 한명훈·김재국 의원, 道 중부권의장협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수상'

지난 3일 의회 본회의장서 시상식 개최.. 두 의원 "시민 필요 정책화, 낮은 자세 소통 노력" 다짐

안산시의회 한명훈 의원과 김재국 의원이 최근 경기도 중부권 9개 시의회 의장협의회가 주관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전돼 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두 의원은 지난 3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시상식에서 중부권의장협의회 회장을 대신해 전수자로 나선 송바우나 의장으로부터 이같이 공로패를 받았다.

중부권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상은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한 경기도 중부권의 9개 시의회 의원들을 격려하고자 제정된 상으로, 의장협의회에는 안산과 시흥, 안양, 부천, 광명, 김포, 군포, 의왕, 과천시의회 의장이 속해있다.

상을 받은 한명훈 의원은 8대 전반기 문화복지위원장을 지낸 재선 의원으로, 9대 의회 들어 '본오피 침수피해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속해 반월천 제수문 관리 실태 점검과 본오피 일대 침수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활동을 벌이면서 지역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아울러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 내 주차장 부족과 중학교 부지 개발, 신안산선 노선 연장 문제를 포함, 현안 해결을 위한 대안들을 제시하며 의회의 대시민 신뢰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했다.

수상자인 김재국 의원 역시 지난 7대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한 재선 의원이며, 다양한 의정 경험을 살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

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발의에 참여하는 등 입법활동을 통한 시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했다.

그는 또 소속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성실히 활동하는 가운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 마스크 계약과 예산 집행 과정의 허술함을 지적하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명훈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요구와 필요를 파악해 정책화하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으며, 김재국 의원은 "자만하지 않고 더욱 낮은 자세로 시민들과 소통해 나가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최정부/기자

## 한국생활개선무주군연합회 윤정순 신임회장 취임

"무주농업의 경쟁력 & 무주살이의 행복 키워나가겠다!"

무주군은 지난 6일 윤정순 회장(55세)이 한국생활개선 무주군연합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농민의 집 농민마당에서 열린 이·취임식 및 연시총회에는 강신정 전임 회장을 비롯한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정순 회장은 "무주군 여성농업인들의 전문 역량을 키우고 지도자로서의 자질 향상과 후계 농업인 육성에 주력해온 한국생활개선 무주군연합회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조직역량 강화, 개인능력 개발, 조직체 활성화 등을 통해 무주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무주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회원들과 합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한국생활개선 무주군연합회에서는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을 기탁(1만 원 자동이체



약정 50장)해 훈훈함을 더했다. 또 신예순, 박미숙, 심미순 회원이 생활개선 배지를 받았으며 강신정 전임 회장은 공로패를 수상했다.

황인홍 군수는 "생활개선회가 무주군 지역사회와 무주농업 발전,

그리고 여성농업인들의 권익향상에 기여한 공을 일일이 다 말할 수 없다"라며 "이 분위기와 존재감을 그대로 살려 올해의 활약도 기대를 한다"라고 전했다.

이정우/기자



▲ 위는 한명훈 의원(좌)이 송바우나 의장으로부터 상을 받는 모습이고, 사진 아래는 김재국 의원(좌)이 송바우나 의장으로부터 상을 받는 모습.

# 내 집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웁니다

"2007년 부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었습니다."

### 눈을 치워야 하는 순서는...

-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합니다.
- 소유자가 비거주시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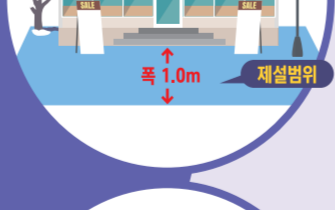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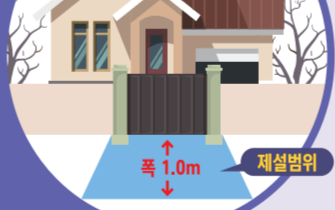
### 눈을 치워야 하는 시기는...

- 주간내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 단, 1일 내린눈이 10cm 이상일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 지붕의 경우 적설량 25cm 이상 시 제설작업 실시

###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는...

- 보도 : 건축물 대지에 접한 구간
-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주 거 용 :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 1미터까지  
- 비주거용 :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
- 시설물의 지붕 -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의 지붕구간 포함)  
- 여러층의 복합적 지붕형성(모든 지붕구간)

눈, 이만큼 치워주세요!







우리 모두의 고향 영양, 함께 살려봅시다

# 10만원 기부하시면

# 10만원+3만원 돌려드려요!

(세액공제)

(답례품)



## ♥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

## ♥ 혜택을 드립니다

- 10만원 이하 : 전액 세액공제 + 답례품 / 10만원 초과 : 16.5% 세액공제 + 답례품  
※ 답례품 : 기부액의 30%내 지역특산물 또는 지역화폐 등

## ♥ 보람이 함께합니다

-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과 보호, 지역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 거주지를 넘어 서로서로 돕는 효과로 전국적인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

## ♥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 기부금액 : 연 500만원 한도(개인만 가능, 법인불가)  
- 기부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e음 접속 / 오프라인 - 전국 NH농협은행, 농축협

· 문의 : 영양군청 재무과 (☎054-680-6820~3)

고향사랑e음  
<https://ilovegohyang.go.kr>